

內申制의 문제점과 改善案

任 寅 宰

(서울大 教育學科)

1. 內申成績의 大學入試 反映過程

우리나라 大學入學 銓衡에서 高校 內申成績을 반영해 온 역사를 따진다면 해방 후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하겠지만, 현행 入試制度 하에서의 內申成績 反映史는 1980년의 소위 '7·30 교육개혁조치'로부터 시작된다. 이 조치에 따라 '81학년도부터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大入 學力考查와 高校 內申成績에 의해서 신입생을 선발하게 되어 종래의 大入 豫備考查와 大學別 本考查는 폐지되었다. 大入 學力考查는 예비고사의 명칭만을 바꾼 것이지만, 大學別 本考查를 폐지하고 內申成績의 反映을 강조한 점은 커다란 변화라 할 수 있다. 그 당시 강조되었던 점은 入試에 대한 학생의 二重負擔을 덜면서 소위 過熱課外現象을 막고 高校教育의 正常化를 도모한다는 것이었다.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한 지금 大入制度를 다시 개선하게 되어 1994학년도부터 몇 과목 이내의 大學別 本考查, 大學修學能力試驗 및 內申成績을 반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개선안에서는 內申成績 反映率을 종래의 30% 이상에서 40%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였다.

현행 入試制度에서 內申成績 反映率을 30% 이상으로 하고 있는 것에 대해 贊反의 소리가 높지만, 그 주된 目的은 다음 몇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로 高校教育이 大入 學力考查와 大學別 本考查를 준비하는 入試學院化되는 것에서 탈피하여 中等學校 教育課程 운영의 正常化를 꾀하는데 있고, 둘째로 학생들이 주로 英語·國語·數學 등 소위 主知敎科에 관심을 갖고 예·체능계 교과를 소홀히하는 데서 오는 全人教育의 문제점을 시정하며, 셋째로 學校 밖에서의 課外 공부 현상을 억제하는 동시에 授業에서의 敎師의 權威를 높이고, 넷째로 內申制의 活用과 강조는 교육 조건이 불리한 지역이나 학교 학생들에게 일종의 政策的 配慮와 報償을 주고 동시에 學生背景이나 教育條件의 지역간 격차를 간소시켜 소위 高校教育의 平準化 또는 均衡의 發展을 꾀하고자 함이었다.

그러던 이와 같은 목적으로 大學入試에 도입된 內申制度는 과거 10년 간을 돌이켜볼 때 과연 그 목적을 어느 정도 달성하고 있는지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

우선 학생들이 과거와 비교할 때에 학교 수업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모든 교과 수업이 교육과정 상의 시간 배정에 따라 비교적 충실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主知敎科 담당 교사 이외의 교사들의 권위와 사기가 높아졌다는 점, 출석 성적을 內申成績에 반영함으로써 학생 출석율이 높아진 점, 교육 여건이 불리한 지역이나 학교 학생들의 진학 기회를 확대시

켜 주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內申成績의 導入이 야기하는 몇 가지 문제점도 간과할 수 없다. 우선 그 하나는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 성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으로써 발생하기 쉬운 成績評價에 대한 불신이나 잡음을 없애기 위하여 敎師는 교과 시험을 客觀式 문제 위주로 출제함으로써 교육 목표 達成度의 충실한 측정이라는 評價의 妥當度가 희생되었고, 오히려 評價의 信賴度와 客觀度에만 관심을 두는 문제를 낳게 되었다. 학생들은 좋은 席次成績을 얻기 위해서 보다 치열한 경쟁의식을 갖게 되었고, 극히 일부의 현상이기는 하지만 학부모의 치마 바람으로 부조리가 발생하기도 하였으며, 특히 成績產出이 애매한 藝·體能系 교과에서 더욱 문제가 되었다.

또한 內申成績 적용상의 문제점으로서 학교간 격차를 무시한 획일적인 내신 성적 적용은 대학 입학 選拔의 合理性을 무시한 非合理的·非教育的인 것이라는 비난과 함께 우수 학생들이 집중된 지역 또는 학교의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음으로써 이에 대한 학부모의 반발과 비난을 받고 있다. 그리고 內申制가 아직도 全人教育에 크게 공헌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즉, 內申成績이 敎科 및 出席成績만으로 산출됨으로써 全人教育의 중요한 측면인 情意的 측면에 대한 評價, 즉 학생의 態度나 行動發達狀況에 대한 評價가 포함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언급한 內申制의 어떠한 공헌이나 문제점보다도 教育當局이 가장 관심을 갖고 골치를 앓고 있는 것은 아직도 高價의 課外와 學院課外가 완전히 근절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과외 공부만으로는 점수가 별로 向上되지 않는 基本知的能力的 측정에 초점을 둔 大學修學能力試驗의 도입과 內申成績 반영율의 40% 이상 상향 조정이 '94 학년도부터 실시될 새 入試制度의 주요 골격이 되고 있다. 물론 새로운 입시 제도에서 大學別 本考査를 일부 부활시키고 있는데, 이것은 大學入試에서 대학의 自律性을 부여하고 客觀式 위주인 大入學力考査의 短點을 보완하기 위한 것

이라 할 수 있다.

2. 內申成績의 一般的 特徵과 現行 內申制의 問題點

大學入學 시험으로 실시하는 학력고사나 대학 수학능력시험 또는 면접 및 실기고사 등의 適合性 또는 妥當性을 檢證하는 데 흔히 쓰이는 기준은 大學 在學中 成績의 豫言이 된다. 大入銓衡에서 사용되는 방법 가운데 大學 입학 후 成績을 가장 잘 예언하는 것은 高校成績이라는 점이 거의 모든 연구들에서 일반적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것은 學校成績이 학생의 學習動機, 學習習慣, 適性 및 일반 능력의 총체적 결과로써 얻어진 結晶體요 양금이라고 할 수 있는 포괄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고 1 보다는 고 2, 고 2 보다는 고 3 成績이 大學 在學成績을 더 잘 예언해 주고 있다. 일반적으로 高校 성적과 大學 성적의 相關關係는 상관 계수 $r=0.50$ 수준이지만, 우리나라 연구에서는 대개 이보다 낮은 상관 계수를 얻고 있다. 그 이유는 고교 성적에 있어서 학교간 차이와 대학 성적에 있어서 敎授 및 專攻 간의 차이를 엄밀히 통제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變因의 信賴度 문제 때문이라고 본다.

미국의 高校 內申成績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와 같이 모든 敎科成績의 총합이 아니라 학생 개인의 적성과 흥미에 따른 선택 교과 성적의 많이 포함되는 것이다. 또한 대학에서 자신의 적성에 맞는 專攻學科를 선택하기 때문에 고교 성적과 대학 성적의 相關은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다. 오히려 高校 內申成績은 일반적으로 다른 어떤 평가 방법이나 점수보다도 系列이나 專攻에 관계없이 가장 안정성있게 大學 成績을 잘 예언해 준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견지에서 대학 성적을 기준으로 볼 때 고교 내신 성적은 大入銓衡에서 고려될 수 있는 가장 타당한 방법의 하나라고 결론내릴 수 있다.

이제 대학 성적을 비교적 잘 豫言해 주기 때문에 大入銓衡에 타당하게 활용될 수 있는 高校 內申制가 우리나라 현행 入試制度에서는 어떤 문제점을 갖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살펴 보

고자 한다. 우선 高校 內申成績은 무조건 大學 成績을 잘 豫言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예언 능력이 상당히 달라질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의 入試銓衡에서는 高校 內申成績이 갖고 있는 많은 情報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즉, 현재 우리는 모든 敎科의 平均成績만을 적용함으로써 각 敎科가 갖고 있는 보다 구체적인 特殊豫言情報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學校成績은 학습 동기와 학습 습관 및 지적 능력 등의 포괄적인 反映體로 結晶體이며, 특히 敎科別 成績은 교과에 관련된 特殊 適性의 정도를 반영하기 때문에 그 학생의 系列 및 專攻別 대학 성적을 더 잘 예언해 줄 수 있다. 앞으로 대학에서 이러한 敎科別 成績을 고려하지 않고 모든 교과의 평균 성적만으로 內申成績을 산출하고 또한 그 反映比率만 높아진다면 高校敎育은 어떻게 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

大學入試에서 모든 敎科의 平均成績만을 이용한다면, 학생들은 높은 성적을 얻기 위해서는 모든 敎科에서 높은 성적을 얻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入試體制는 특정 敎科에서의 남다른 우수성이나 개성을 인정하지 않고 모든 교과를 비슷한 수준으로 잘 해야 한다는 개성없는 平均人의 養成을 은연중 강조하는 결과가 된다. 오늘날 우리 敎育의 문제점 가운데 하나는 民主社會의 民主市民으로서 또한 國際産業社會에서의 경쟁을 위해서 個性敎育 또는 適性敎育이 중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실제로는 모든 학생이 동일한 敎科를 동일한 수준까지 달성하기를 기대하는 것이다. 이는 學校가 규격화된 標準商品을 생산하는 공장으로서 전락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견지에서 대입 전형 과정에서 단순히 모든 敎科의 평균 성적으로만 高校 內申成績을 산출한다면, 대학의 입장에서 볼 때는 대학 성적을 豫言하는 데 보다 타당한 敎科別 成績을 이용하지 못하여 고교 내신 성적이 제공해 주는 풍부한 情報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함으로써 보다 적합한 學生을 선발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반면, 고등학교의 입장에서 볼 때는 個性없는 平均人의 양성에 더욱 매진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현행 內申制度의 두번째 문제는 大入 學力考

査에 대한 內申成績의 반영 비율이 예를 들어 30%라고 할 때 大入 選拔에서 內申成績은 학력 고사 성적과 비교할 때 실제로 30% 만큼의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內申成績은 대입 학력고사 점수를 합한 總點의 30%, 그리고 내신 성적 중 出席成績은 이 내신 성적의 10%를 배점하도록 되어 있다. 이 경우에 대입 고사 성적 340 점을 기준으로 총점의 30%에 해당하는 점수를 내신 성적이라고 할 때 總點은 485.7 점이다. 이 총점에서 340 점을 뺀 145.7 점이 내신 점수가 되는데, 이 145.7 점 중 10%가 출석 점수에 배당된다(약 14.6 점). 여기까지는 계산이 정확하지만, 최종 내신 성적 산출 단계에서 문제가 생긴다. 즉, 백분율로 나타낸 학생들의 내신 석차를 일정한 비율로 나누어 10 등급으로 묶고 1 등급을 기준으로 교과 성적 최고 점수로부터 2 점씩 감하여 나가는데, 1 등급과 10 등급 사이에는 18 점 차이밖에 생기지 않는다.

또한 출석 점수는 5 등급으로 나누어 최고 14.6 점에서 각 등급간 1.5 점씩 차이를 둬므로써 최고 14.6 점에서 최하 8.6 점을 얻게 된다. 결국 내신 성적은 최고 145.7 점(131.1(교과 점수)+14.6(출석 점수))에서 최하 121.7 점을 받게 되므로 내신 점수의 範圍 또는 變散은 24 점밖에 되지 않는다. 반면에 학력고사 점수는 대략 340 점에서 120 점 사이로 볼 때 점수의 變散 가능성은 220 점이다. 따라서 總變散可能點數(220+24) 중 내신 성적은 24 점을 차지하므로 이를 백분율로 환산하면 약 9.8%가 된다. 즉, 대입 학력고사 점수와 내신 성적을 합한 총점으로 선발하는 경우에 大入 考査에 비하여 內申成績은 약 10%의 비중밖에 갖지 못하는 것이다.

거의 0~100 점 사이에 情報를 주는 백분율 석차를 다시 10 등급으로 묶어서 각 등급간 2 점 차이를 두는 근거가 무엇인지 이해할 수가 없다. 원칙적으로 내신 성적이 선발 총점에서 30%의 기능을 완전히 발휘하려면 0 점에서 최고 145.7 점을 끌고루 줄 수 있어야 한다. 겉으로는 內申成績이 大入 選拔에서 30%의 영향을 주는 것처럼 보이게 하면서, 실제로는 10% 미만의 영향력 밖에 행사하지 못하게 한 이유는 무엇일까? 이

것은 아마 표면적으로는 丙申成績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高校教育의 正常化를 꾀하는 동시에 실제로는 그 영향력을 적게 함으로써 地域 및 學校 간의 隔差에 미치는 내신 성적의 영향을 최소화시키려는 데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大入 選拔에서 아무리 높은 점수를 배당한다고 하더라도 그 점수의 範圍 또는 變散이 적으면 중점 순으로 선발하는 相對的 選拔에서는 그 영향이 감소된다. 중요한 것은 點數의 全體 變散이 어느 정도 되느냐가 그 선발의 영향력의 정도를 결정하게 된다는 점이다. '94 학년도부터 丙申成績의 비중을 40% 이상으로 올린다고 하더라도 현재의 조건과 계산 방법에 의한다면 실제로는 약 14%의 영향력밖에 갖지 못한다는 결과를 얻게 된다.

測定學的 측면에서 내신 성적 反映의 세번재 문제는 地域 및 學校 간에 學力水準의 격차가 있는 데도 이를 무시하고 동등하게 취급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一般政策的 측면이 아닌 선발 기준의 合理性·妥當性의 견지에서 문제가 된다. 이 문제의 해결 방법은 각 대학마다 學生選拔과 그 研究를 전담하는 常設機構와 專門人力을 두고, 예를 들면 해당 대학에 지원하는 고등학교의 수준을 크게 3~4 개로 나누어 그것이 대학 성적을 예언해 주는 정도에 따라 丙申成績의 비중을 달리하도록 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3. 丙申成績 活用과 改善方案

지금까지 丙申成績 活用の 문제로서 세 가지를 지적하였다. 모든 교과와 平均으로서의 總點 席次만이 아니라 高校에서 교과별로 敎科別 席次點數를 제시하도록 한다면, 大學에서는 系列別 또는 專攻別로 관계되는 敎科成績의 비중을 달리하여 입학 선발의 合理性과 妥當性을 더욱 높일 수 있고 高校에서는 平均人의 養成을 탈피하고 교과에 따라 학생의 適性と個性을 살릴 수 있는 教育風土를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둘째로 공평된 내신 성적의 反映 比率이 실질적으로 반영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현재는 백분율의 내신 성적을 10 등급으로 묶어 다시 기

본 점수를 주고 2점씩 가산하여 조금 점수를 풀어 놓는 식이므로 그 목적이 애매하다.

현재는 高校教育의 正常化라는 슬로건 하에 일률적으로 모든 대학이 내신 성적을 최소한 30% 이상 또는 40% 이상 적용하도록 규정하여 애매한 산출 방법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지만, 이것은 입학 선발에서 大學의 自律性과 大學의 目的 또는 專攻 特性을 무시한 劃一的·非合理的 처사라 아니할 수 없다. 教育當局은 입학 전형에 丙申成績을 반영하게만 할 뿐, 그 適用의 정도와 適用方法에 관해서는 각 대학에 일임하는 것이 原則일 것이다. 즉, 백분율의 丙申成績을 大學의 目的과 專攻의 特性에 따라 비중을 달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地域差나 學校差를 고려하지 않은 내신 성적 적용의 劃一性 문제를 지적하였는데, 이것도 각 대학의 自律에 맡겨 자체 연구 결과와 학교 수준에 따라 辨別的 比重을 둘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敎科別 내신 성적의 活用 문제, 專攻과 系列에 따른 내신 성적 反映比率 문제 및 學校差를 고려한 내신 성적의 差別的 比重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은 각 대학에서 별도로 入學 專擔 常設機構를 설치하는 것이다. 현재는 그 책임 소재가 敎務課에 있지만, 입학 시기에 일시적으로 조직하고 해산하는 入試委員會의 기능만으로는 이러한 문제의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본다. 美國에서처럼 入學을 전담하고 연구하는 入學專擔課(admission office)가 별도로 있어서 입학에 대한 업무와 연구를 1년 내내 계속적으로 수행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大學은 보다 적합한 學生을 選拔하는 것이 그들을 교육시키는 教育的 功能만큼 중요하다는 새로운 인식 아래, 지원 학생의 선발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전담 기구의 설립이 시급히 요청된다. 이러한 專門의 常設機構가 설립될 때에 入學選拔에 있어서 大學의 自律性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고, 보다 높은 수준의 입학 선발의 專門性과 妥當性이 확보될 수 있다. 더 나아가서는 丙申成績의 活用이 高校教育의 正常化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가 더욱 확대될 것이다. *